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 연구 - 울산시 거주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

정민자 · 하쾌남
아동 · 가정복지학과

<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가구가 형성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는 개별 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과정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총24사례를 수집하여 18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첫째, 독거노인가구의 형성원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독거원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둘째,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독거원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둘째, 독거노인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독거직전의 동거 가족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형성경로를 유형화하였고, 생애과정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분석하였다.

The Case Study in the Process of Being the Aged Household of Living Alone as their Life Course - Focused on the aged women in Ulsan -

Jung Min Ja · Ha Kwae Nam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for and the process of being the aged household of living alon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women over 65 years

old in Ulsan. The data have been collected by visiting and interviewing them individually. In interviews, questionnaires and recorders were used, and then 18 cases were analyzed.

The conclusion from the investigation and discu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cause of living alone perceived by themselves ; The cause can show 5 types(their undutiful adult children, the absence of a son, the burden to their married children, the absence of children, the marriage to the husband with problems). 2. The process of living alone ; The process is typelized as 5 types, according to the family whom(a husband, unmarried children, married children, grandchildren, her mother) they lived with before living alone. And it is analyzed in three aspects-the route, the whole life course and the genogram.

I. 서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 증가율은 노인인구의 증가율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통계청, 1996 ; 통계청, 1997).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시점이 멀지 않았으며, 노령화 지수는 1995년 현재 25.8%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생산인구의 비율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최일섭·최성재, 1998). 이 부분에 대해 우리사회는 가족과 국가 둘 중 '누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가'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은 가족이다. 가족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부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Ward, 1984), 사회에서의 후퇴, 심신의 약화 등으로 생활 환경이 축소된 노인들에게 있어 청·장년기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인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 그대로 남아서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최선책이라는 개념이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태현, 1993).

그러나 이제 가족은 노인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단독세대가 늘어나고(구자순, 1993), 노인들은 외부지원체계가 미약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능력과 심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심영 외, 1996). 이러한 독거노인들은 주거문제를 비롯해 가족문제, 소외의 문제, 신체적 변화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구자순, 1993), 특히 중소도시와 군부의 경우 그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또한 배우자 상실에서 오는 정서적 부양의 결여와 고독을 경험하기도 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은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조옥희 외, 1991). 그들은 전 생애에 걸쳐 전통적인 여성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로 인해 배우자의 상실과 동시에 재정적 궁핍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독거노인들은 배우자의 상실과 자녀의 독립으로

홀로 남게 되지만 자신의 부양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열악한 수준에서 남은 삶을 살게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독거노인가구는 노인이 스스로 선택한 가구형태라기 보다는 핵가족 선호,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와 남성중심의 전통적 사상과 같은 시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독거노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양적·기술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질적인 연구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우선 독거노인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그들의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독거노인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되는 과정을 생애과정(life course)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가족, 독거가구의 형성원인과 과정을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생애과정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독거노인에 대해 접근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에 대해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생애과정(life course)이라 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이 갖는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가족사적 접근법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사용되는데(Morgan, 1985), “개인의 생애과정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으로 창출되고 인식되는 연령과 관련된 역할의 전이(transition)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가족학회, 1996).”

독거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생활실태, 복지요구, 복지적 대안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기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오복희(1996)는 자녀별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의 가족(특히, 자녀)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89%가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체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또 노후생활의 가장 큰 문제로 37%는 경제적 어려움을, 31%는 건강문제를 호소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18사례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빈곤층의 여성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추진·윤가현(1995)은 광주노인복지회에 위탁된 독거노인 중 70명을 대상으로 경제생활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 29명은 거택보호자이며 41명은 자활보호자이다. 이들은 시·정부 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가 78,000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 중 노령수당까지 받는 사람은 월 90,000원을 받고 있었다. 자활보호자이면서 70세 이상은 2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 독거노인에게 있어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은 비정기적이면서 매우 드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자녀에게서 용돈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이며, 용돈을 주는 형태가 매우 비정기적이다. 때문에 자녀에게서 용돈

을 받는 경우에도 연구대상자들은 자녀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 최저의 생계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앞의 연구에서는 70명 중 15명만이 근로가 가능한 상태였고, 근로소득을 위한 일은 아기돌보기와 폐품수집 등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18사례 중에서 4명이 노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며, 18사례 모두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기 이전에는 모두 노동으로 생계비를 충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신체상의 이유로 수입이 단절된 상태에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절실히 바라게 된다.

송점호(1994)는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지체계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대상은 노인독신가구가 85.2%, 노인부부가구가 14.8%였다. 건강상태에 대해 68.7%가 나쁘다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남녀모두 류마치스 신경통(54.5%)이 가장 많았다. 혼자 살게 된 이유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가 5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살림이 어려워져'가 29.6%를 차지했다.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보고된 바와 같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문제와 건강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일선(1996)은 생활보호법에 따른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고 있는데, 연구대상 중 91.4%가 여성노인이었으며, 87.6%가 중증의 질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행정도에 있어서 41.9%가 걷기 힘든상태에 있었으며, 21%가 보조기나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월평균 수입은 44.8%가 10만원 이하, 49.5%가 20만원 이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독거노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다.

송대현·박한기(1992)는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보고에 따르면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더 자존심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질병이 있는 노인일수록, 고령감을 느끼고 있는 노인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나쁠수록,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자존심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특히 여성독거노인의 자존심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그들에게 있어 삶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며, 자신은 아무 곳에도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주성수·윤숙례(1993)는 노부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간의 일반 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신체질환에 있어서 독신집단이 부부집단에 비해 더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독신집단이 부부집단에 비해 더 빈번한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지며, 더욱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영아·이정덕(1996)은 홀로됨으로써 노년기에 겪는 영향으로 특히, 사회적 안전망(network)과 역할에 붕괴가 오게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여성노인¹⁾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1>, <표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I (사례1-사례10)

사례	이름 (가명)	나이 (만)	형제순위	종교	교육 수준	결혼형태 (연령:만)	순수 독거 기간	출산 자녀	생존 자녀	건강상태	독거직 전동거 가족	직업경험 (현직업)	남편 직업 [*]
1	김노분	87	부남독녀	없음	무학	14세 62세 결혼 사별	7년	2남 ?	1남 ?	허리,다리 /시력감퇴	손녀	농사	농사
2	김해순	65	1남3녀#1	없음	중졸	19세 62세 결혼 사별	3년	2남 2녀	2녀	관절염/ 보행불능	남편	식당일, 막노동 (애기보기)	트럭 운전
3	이순희	67	1남3녀#4	없음	무학	18세 47세 결혼 별거	3년	2녀	2녀	관절염 (약복용)	작은딸	창소부 (편빵행상)	지게 지기
4	김순남	84	2남1녀#3	없음	무학	14세 47세 결혼 사별	10년?	1남 2녀	1남 2녀	보행불편	어머니	채소장사	일일 노동
5	박계순	84	4남4녀#2** (3녀#2)	기독교	초등 중퇴	17세 81세 결혼 사별	3년	1남 ?	1남 ?	환병	남편	금장사 메주장사 막노동	장사 경비
6	구경순	76	2남4녀#1	불교	무학	16세 28세 결혼 사별	25년?	1남 2녀	2녀	허리,다리	작은딸	농사 발품팔이	농사
7	강순복	80	2남2녀#4	기독교	무학	17세 67세 결혼 사별	1월***	2녀	2녀	치아	큰딸 가족	장사 가정부	막노동
8	윤필자	77	1남1녀#2	불교	무학	19세 74세 결혼 사별	3년	1남 3녀	1남 1녀	관절염/ 고혈압	남편	장사 품팔이	인쇄소 근무
9	박순임	70	3남6녀#6** (1남6녀#4)	없음	무학	15세 36세 결혼 별거	20년	3남 3녀	3남 3녀	환병/ 신경쇠약	막내 아들	발품팔이 (장사)	없음
10	양순옥	78	3남2녀#1** (2남2녀#1)	미특 불	무학	20세 28세 32세 56세 결혼 사별 재혼 사별	22년	4남 2녀	3남 2녀	허리,다리 /관절염	남편	(담배장사)	①어선 ②어선

* 첫 번째 남편은 ①, 두 번째 남편은 ②.

** 이부형제자매를 포함하였으며, 자신의 친어머니 대에서의 형제순위는 ()안에 표기.

*** 70세부터 혼자서 살다가 살던 집이 없어지면서 큰딸과 작은딸 집을 오가며 생활, 최근 큰딸의 집에 있다가 독립한지 1개월이다.

1) 독거노인(獨居老人)이란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와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게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이혜원, 1997).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개념을 '자녀 및 친척 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서 만1개월 이상을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II (사례11-사례18)

사 례	이름 (가명)	나 이 (만)	형제순위	종교	교육수준	결혼형태 (연령:만)	순수 독거 기간	출산 입양 자녀	생존 자녀	건강 상태	독거직 전동거 가족	직업 경험 (현직업)	남편 직업*
11	윤순재	80	12남5녀가7** (9남2녀가1)	기독교	부하	16세 결혼 19세 이혼 22세 재혼 77세 사별	3년	1남*** 1남 1녀	1녀	허리, 다리 불편/ 고혈압	남편	없음	①국수 장사 ②묘자리
12	최봉순	69	2녀42	불교	초등 졸	15세 결혼 21세 별거 26세 재혼 31세 사별	3년	1남**** 2녀***	1남**** 2녀***	진반적 으로 좋지않음	입양 아들	장사	①농사 ②농사
13	박순정	82	1남5녀가1	불교	부하	16세 결혼 22세 별거 29세 재혼 49세 사별	5년	1남 2녀	2녀	다리 불편	아들	국수,떡, 생선장사	①막노동 ②밀치배
14	강옥련	71	2남3녀가2	불교	무하	20세 결혼 21세 이혼	12년	없음	없음	저혈압/ 다리수술	어머니	가정부, 품팔이	머슴
15	이옥순	79	5남5녀가10	불교	초등 중퇴	15세 결혼 37세 사별	2년	2남 5녀	3녀	장나뻘/ 고혈압/ 눈수술	넷째딸 내외	죽장사	집수리 고불장사
16	홍차옥	68	4남3녀가7	불교	초등 졸	15세 결혼 29세 별거	30년	1녀**** 1녀	1녀**** 1녀	관절,허리, 다리 불편 다스크	친딸	장사,공 장,식당 (가정부)	면직원, 신문기자
17	김둘이	78	1남1녀가1	불교	부하	20세 결혼 44세 사별	3년?	1녀	없음	관절,허리, 다리 불편/햇 병	외손자	없음	미장이
18	실연이	73	1남2녀가1	기독교	무하	17세 결혼 50세 사별	23년	1남****	없음	양호	남편	가정부 농사, 장사	없음

* 첫 번째 남편은 ①, 두 번째 남편은 ②.

** 이복형제자매를 포함하였으며, 자신의 친어머니 대에서의 형제순위는 ()안에 표기.

*** 본인이 출산했으나 전혼에 두고 온 자녀

**** 입양자녀 또는 전처 출생이나 본인이 양육한 자녀.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면접 하였다. 모든 질문과 응답에는 특정 형식을 두지 않았으며, 면접내용의 분석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하였다. 면접시간은 약 2시간이었으며, 질문내용은 조사대상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나이, 종교, 교육수준, 결혼형태, 건강상태, 직업, 주거형태, 생활보호형태), 독거가구 형성 및 생활에 관한 사항(독거기간, 독거노인이 된 경위, 독거에 대한 본인의 인식, 앞으로의 전망, 생활시간 형태, 원조자), 생애과정에 관한 사항(유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삶의 경험), 가계도 관련사항(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가족관계)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9월 21일에서 9월 2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9월 28일부터 1998년 10월 14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사례 중 18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경로는 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명단을 수집하여 개별방문을 하였다.

3) 연구문제

- ① 독거노인은 독거가구의 형성원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 ②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 ㄱ. 독거가구의 형성경로는 어떠한가?
 - ㄴ. 독거노인의 생애과정(life course)은 어떠한가?
 - ㄷ. 독거노인의 가족관계와 가족사(family history)는 어떠한가?

2. 연구의 접근방법

본 연구는 가족사적 접근의 기본적 분석방법인 가족발달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과정적 접근에 따라 독거가구의 형성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독거노인가구의 형성원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독거노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형태로 지각하고 있다.

1. 부모부양, 그 의무와 선택의 경계선

첫 번째 유형은 자녀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자녀에 대해 부양기대를 포기하고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혼자 사는 원인을 자녀의 불효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례1, 사례4, 사례5, 사례7, 사례12, 사례13이 포함된다.

“딸 두나 있는 거를... 지거 버려 먹고산다고...애를 먹는데... 날 십원짜리 하나 안 해주고... 물 한 그릇도 안 주는데 뭐... 지거 버려 먹고산다고... 딸 혼자만 버려 먹고사는데... 남편은 천날 만날 놀지럴... 산다고 마 애를 먹는데... 딸 두나 있는데 없는 거나 똑같애...”(사례4)

“휴-우- 나는 인간이란 믿을 법이 없다. 나는 아버지만 믿는다. 오 주여!..... 걱정되는 게 없다. 그래 살재, 요새 자식놈들도 자식민는 걸 바보라 카는데..... 우리는 한평생 자식한테 안 얻어먹고 살아도... (중략)... 하나도 잘 사는 것도 없고, 저거 형제간도 마카 이렇고, 마카 니는 니고, 내는 내고 그렇다. 어디가 사는가, 그냥 산다 마”(사례5)

사례1의 김노분씨는 자신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전처의 호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대 딸도 장남한 딸 있으면 딸 벌어가 엄마하고 산다고 그거 하는데 뭐 아들인데 뭐고 그 쪽으로 그 해뿌고 없어. 혼시(혼인신고)도 절로 해뿌고 없어”라는 김노분씨의 말은 딸도 그정도 크면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아들이라고 있어도 호적이 다른데 있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사례4의 김순남씨에게는 딸이 둘 있지만 두 딸 모두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살림을 꾸린다고 김순남씨를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김순남씨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두 딸이 원망

스럽기도 한 모양이다. 사례5의 박재순씨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 큰아들 때문에 횡병까지 얻은 박재순씨는 자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한 듯하다. 이제는 그냥 자식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사례7의 강순복씨는 딸이 둘 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모신다고 모시지만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 “혼자 있다고 들어오면 뭐 좀 먹이고 이래 해야 하는데 저거 돈버린다고 저거 데다꼬 그거만 생각하지. 생각안한다. 병원에를 데꼬 가나... 뭐”라고 말하는 강순복씨는 딸집에서 제대로 대접 못받고 불편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와서 맘대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큰딸 집을 나왔다. 사례12의 최봉순씨는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다. 자신의 사주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라는 기대는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난 사주에 없는 기라. 그래 그 딸이 참 맛다. 참 불효자라. 정말 담배 한 갑을 사준 적이 없으니까”라는 최봉순씨의 말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사례 13의 박순정씨는 딸이 둘 있다. 두 딸은 사는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저거도 사는 자체가 그런데 뭐. 저거 별어가 그냥 살겠지 뭐”라고 그냥 체념 하지만 자꾸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2. ‘딸’이라는 이름의 자녀

두번째 유형은 ‘딸은 출가외인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에게는 딸밖에 없으니까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에는 사례3, 사례6, 사례15, 사례16이 포함된다.

“출가외인 아ნი교 여자는...(중략)... 이래 사는게 낫지... 괴롭힐 것도 없고. 안주까정 켜 참으니까. 요새 자기 부모도 다 따리 사는데... 그냥 이래이래 사는게 낫니다.”(사례3)

“딸 무신 소용 있노? 아--무 소용 없다 딸은. 딸은 출가외인이다. 엄마곁에 있을 적에 나 그래도 업마... 뭐 하면 마 그만이다. 자식놓고 살고 저거 살라고 나부되지 뭐.(중략)... 모시고 살지도 못한다. 저거도 시어른 있고 안시어른 있고 사는 형편이 빠듯한데... 어예 사노. 이리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만이지.”(사례6)

사례3의 이순희씨는 여건이 된다면 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딸은 출가외인이고 시부모님 모시고 있으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6의 구경순씨 역시 딸이 형편도 어려운데다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으니 딸이 자신을 모시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례15의 이옥순씨는 딸은 자신을 모시려고 하지만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함께 살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옥순씨는 사위가 미울 뿐이지 딸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다. 사례16의 홍차옥씨는 딸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다. 딸은 자신이 혼자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3. 신세지기 싫은 마음

세번째 유형은 자녀에게 신세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니까 혼자 산다고 말한다. 이 유형에는 사례8, 사례10, 사례11이 포함된다.

“요새는 따로 살은 사람은 한테가 못 산다. 이래 살다가 마 정 잘 못살면 고만 자식한테 가야지. 아직은 내가 거동이 되니까...”(사례8)

“나 인자 자숙도 없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아파트에서 살고 딸은 인제 저거 밥은 먹고 살거든. 그래 딸 신세 질라니 그렇고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한게 나 혼자 이라고 안 있다. (중략)... 딸이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고 내가 혼자 이렇기... 내 팔자가 그렇던데 딸내집에 들어가까꼬 딸하고 살 처지가 못되거든.”(사례11)

사례8의 윤필자씨는 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아들과는 조금 소원한 관계에 있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아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한다. 사례10의 양순옥씨와 사례11의 윤순재씨는 모두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다. 자녀들은 부양할 의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몸이 괜찮다는 이유로 본인 스스로 혼자 살기를 선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언제든지 자녀가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례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4. 무자녀

네번째 유형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례17과 사례18이 포함되는데, 사례17의 김둘이씨의 경우는 외손자가 둘 있다. 하지만 김둘이씨 스스로는 독거의 원인을 딸의 죽음에 두고 있다. 사례18의 설연이씨는 남편이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고, 남편이 죽은 이 시점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인다.

5. 잘못된 만남

다섯번째 유형은 혼자 살게 된 원인을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례2, 사례9, 사례14가 포함된다.

“젊어서도 내 놀고먹더니만 끝에 가서는 드러누워 가지고... 내가 똥 치워가며 병수받았어. 세상에.. 젊어서 돈이라도 벌어주고 제구실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젊어서... 그-런-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니만... 마지막 갈 때까지... 내가 안 해본 일이 없어... 내가... 발일부터 남의 집일까지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니까.”(사례2)

“신랑이 그래가꼬설랑 오두막집 하나 있는 거 그냥 나두고 거기로 와가꼬 살다가 우리 막둥이 낳은지 동짓날 칠일날 낳았는데 그 이듬해 동짓달 십오일날 우리 영감쟁이가 그때는 뭐 육이오 사변 지낸곤개 과부들이 천지거든. 그때만도 나는 혼에서 살다와서 이사왔은게 모르지. 그래가꼬 ○○발전소 곁에서 살다가 과부 거기서 우리 막둥이 낳은지 칠개월 만에 도망가가꼬 ○○가서는 살았지.”(사례9)

사례2의 김해순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남편이 망쳤다고 지각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일은 안하고 놀고먹기만 했던 남편, 죽기 전에 9년 동안을 누워서 병수받을 시킨 남편, 김해순씨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사례9의 박순임씨의 남편은 막내아들이 칠개월 될 때 과부와 도망을 갔다. 그때부터 생긴 신경성 환병으로 박순임씨는 신경쓰이는 일이 조금만 있어도 가슴에 통증이 오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살고 있다. 사례14의 강옥련씨는 결혼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귀던 과부와 첩 살림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강옥련씨는 아이를 가져볼 기회조차 상실하고 지금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독거가구의 형성원인을 '자녀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가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와 같이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가옥 등(1989)의 연구에서 밝힌 내용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형성원인을 독거노인 자신이 지각하는 것으로 다룬 반면, 이가옥 등(1989)의 연구에서는 형성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형성원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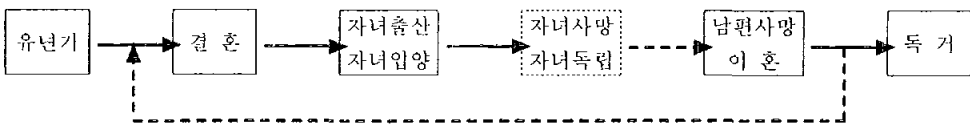
V.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독거직전의 동거가족원에 따라 '남편의 사망', '미혼자녀의 독립', '기혼자녀와의 별거 및 이별', '손자녀의 독립',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유형화하였고, 각 유형별로 '형성경로', '생애과정', '가계도'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형성경로'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독거가구를 형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둘째, '생애과정'에서는 독거노인의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삶의 경험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기술·분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와 가족사'에서는 독거노인의 원가족과 배우자,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과 가족관계를 도식화하여 가계도를 작성·해석하였다(지면관계상 각 사례별 형성경로와 생애과정에 대한 축어록, 가계도를 모두 신지는 못함).

1. 독거가구의 형성경로

1) 남편의 사망

독거가구의 '형성경로'는 각 사례를 독거직전의 동거가족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남편의 사망'을 유형1로, '미혼자녀의 독립'을 유형2로, '기혼자녀와의 별거 및 이별'을 유형3으로, '손자녀의 독립'을 유형4로, '친정어머니의 사망'을 유형5로 설정하였다. '유형1'은 독거직전 동거가족원이 남편인 경우로, 사례2, 사례5, 사례8, 사례10, 사례11, 사례18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유형에는 총18사례 중 6사례가 포함되었다. 이들의 독거가구 형성경로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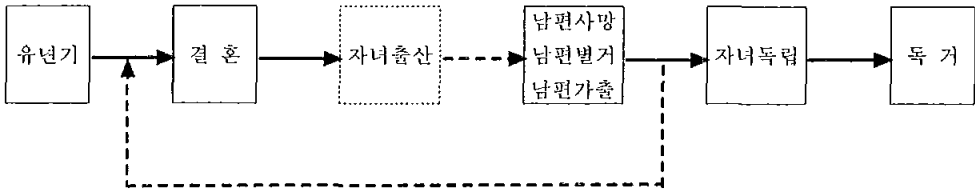


<그림 1> 유형1의 독거가구 형성경로

‘유형1’의 경우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독립해 나가면서 부부가구로 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 중 사례10과 사례11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로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재혼을 하거나 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독거직전 동거했던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 된다.

2) 미혼자녀의 독립

‘유형2’는 독거직전 동거가족원이 미혼자녀인 경우로, 총 18사례 중 5사례가 포함된다. 사례3, 사례6, 사례9, 사례12, 사례16이 이 유형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독거가구 형성경로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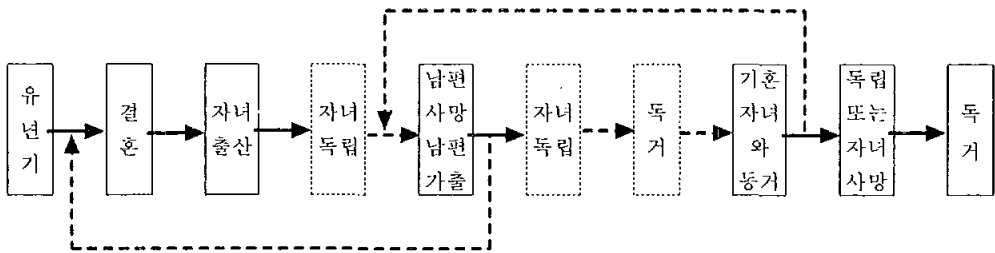


<그림 2> 유형2의 독거가구 형성경로

‘유형2’의 경우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남편과 사별 또는 별거하거나 남편이 가출을 한 뒤 자녀가 독립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3) 기혼자녀와의 별거 및 이별

‘유형3’은 독거직전 동거가족원이 기혼자녀인 경우로 사례7, 사례13, 사례15가 여기에 포함된다. 유형3의 독거가구 형성경로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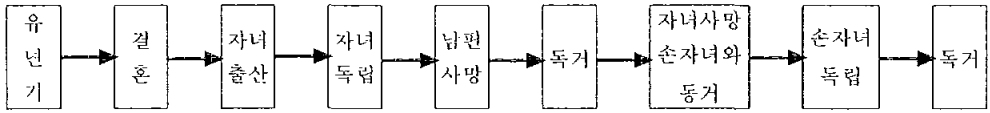


<그림 3> 유형3의 독거가구 형성경로

‘유형3’의 경우는 자녀가 어린 시기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가출하여 모자가구를 형성한 후 자녀가 독립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였다가 기혼자녀의 집에 들어가면서 3세대 동거가구를 형성하고, 그 후 본인이 독립해서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사례13의 경우는 재혼을 하면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남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녀독립 후 부부가구를 형성하였다가 기혼자녀와 재동거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가 사망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4) 손자녀의 독립

‘유형4’는 독거직전 동거가족원이 손자녀인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사례1과 사례17이 포함되는데, 그 형성경로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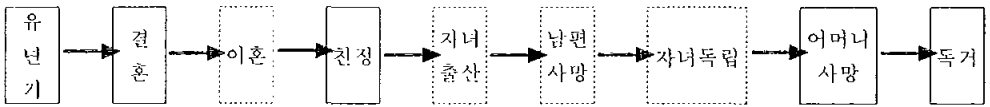


<그림 4> 유형4의 독거가구 형성경로

‘유형4’의 경우는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이 사망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였다가 기혼자녀가 사망하면서 손자녀와 남게 된 경우이다. 결국 손자녀가 독립하면서 다시 독거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례1의 경우는 자녀가 사망할 당시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이고, 사례17의 경우는 별거하고 있던 자녀가 사망하면서 손자녀와 동거하게 된 경우이다.

5) 친정어머니의 사망

‘유형5’는 독거직전 동거가족원이 친정어머니인 경우로 사례4와 사례14가 포함된다. 이 유형의 독거가구 형성경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유형5의 독거가구 형성경로

‘유형5’의 경우는 결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서 친정어머니를 부양하며 살다가 친정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사례4의 경우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와서 자녀출산, 남편사망, 자녀독립의 과정을 거쳐 친정어머니와 두 사람만 남게 된 경우이며, 사례14의 경우는 결혼 후 곧장 이혼하면서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로 자녀출산과 자녀독립의 과정이 없다.

2. 생애과정

‘생애과정’은 각 사례의 생애과정에서 삶의 전환점(life turning)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삶의 전환점은 당사자에게 대부분 스트레스 상황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들은 결혼, 자녀의 사망,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가출 또는 사망, 배우자와의 별거 등의 사건을 겪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삶의 전환점은 결혼이다. 결혼동기에 따른 각 사례의 초혼연령과 남편과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초혼동기와 결혼관계

결혼동기	사 례	이 름	초 혼 연령	남편관계*	관계형성 요인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나이가 차서'	2	김해순	19	매우갈등	경제적 부능, 슬값
	3	이순희	18	갈등	아들 못 낳아서
	5	박재순	17	조금친밀	무뚝뚝하면서 위해주는 편
	6	구경순	16	그저그렇다	무뚝뚝
	7	강순복	17	갈등	노름판에 돈 다 씀
	8	윤필자	19	갈등	자주 집 비움/돈벌어서 술집
	10	양순옥	20	조금친밀	자상한 편
	11	윤순계	16	매우갈등	남편의 모함으로 시집에서 쫓겨남
	13	박순경	16	갈등	외도, 가출
	14	강옥련	20	갈등	결혼전 사귀던 첩과 도망
	15	이옥순	15	갈등	구타
'일본군 위안부로 가지 않기 위해서'	9	박순임	15	갈등	과부와 도망, 중풍 후 계동거
	12	최봉순	15	매우갈등	외도, 계속 첩 들임
	16	홍차옥	15	소원	고된 시집살이
'숙모가 보내서'	1	김노분	14	그저그렇다	
'딸 잃을 까봐 엄마가 보내서'	4	김순남	14	그저그렇다	
'부모님 찾으러 가는 길에'	18	설연이	17	갈등	남편 불임, 시어머니 구박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또는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한 경우가 총 18사례 중 12사례를 차지한다. 그들은 주로 때가 되어서 집에서 보내는 대로 시집을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로 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경우는 총 18사례 중 3사례로 나타나고 있는데, 1928년에서 1930년도에 출생하여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결혼을 한 경우로, 그들의 결혼동기는 전적으로 시대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일본으로 말이어 자식 보급대 보내느니 시집이나 보낸다고 그래 가꼬 열여섯 살에 시월 스물이튼날 인자 결혼해서 갔어"(사례16)

"그때는 마 급해가 구하고 뛰고 할끼 없거든. 오늘 구하면 마마 내일 결혼하고 그랬거든. 그래 할 수 없잖아 엄마도. 목숨하나 살려 주는 거나 한가진대 말이지."(사례12)

이들은 유년기를 순탄하게 보냈지만, 15세의 나이에 서둘러 한 결혼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사례9의 경우 결혼해서 남편이 과부와 도망가는 바람에 육남매를 키운다고 생전 해 보지도 않던 장사부터 품팔이까지 일을 해야 했고, 사례12의 경우 농촌으로 시집을 갔지만 일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결국 첩을 들여주고 시집을 나왔다. 사례16의 경우 고된 시집살이에 첫딸을 낳은 이후 계속 유산이 되었고, 결국은 아들을 못 낳아서 시집을 나왔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준비되지 않는 결혼을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급격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사례1의 경우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과 숙모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숙모가 일찍 시집을 보낸 경우이다. 사례4는 오빠 두 명이 일찍 죽자 어머니가 딸도 일찍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빨리 시집을 보낸 경우이며, 사례18의 경우는 자신을 남의 집에 맡겨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떠난 부모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의 소개로 뜻밖의 결혼을 한 경우이다.

본 연구의 18사례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은 사례2와 사례18의 경우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사례는 집에서 보내는 대로 가는 시집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를 보면 총 18사례 중 11사례가 '갈등' 또는 '매우갈등'의 상태였으며, '그저그런' 관계가 3사례, 소원한 관계가 1사례, '조금친밀'한 관계가 3사례였다. 결혼동기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결혼생활과 남편과의 관계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이다.

“마 그치 사이 좋은 것도 모르고 마 그지그지 사는 거라고 살았지... 요새사 안아주고 뭐 손 뿌싸코 땡기기고 하드라마는 우리는 그런것도 모르고 밥 하든 밥 채려주고 나서 저 앉아가 묵고 뭐 밥 다 묵으면 상 가지고 가 치우고 뭐 치아놓고 설겜이 해 놓고... 밖에 일하는 거 바쁘고...”(사례1)

위의 이야기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 시대의 '딸'이라는 존재는 키워서 '치위야' 하는 존재였고, 그들에게 있어 남편의 존재란 시중들고 모셔야하는 대상이었다. 여자는 결혼해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집안 일이나 하고 남편 시중들고, 그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였을 뿐이다. 이것은 그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들이 아무리 집안에서 사랑 받고 귀하게 컸다한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들의 행복은 끝이 난다.

본 연구 사례 중 결혼이 그들의 생애과정에 있어 부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례1, 사례5, 사례10, 사례17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했으며, 사례1의 경우는 숙모와 삼촌의 학대와 구박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결혼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다.

그들의 생애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삶의 전환점은 '남편의 부재'이다. 그 시대에 '여자'는 사회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부재는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된다. 각 사례에 있어 남편의 부재기간과 부재이유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남편의 부재기간과 이유

사례	이름	남편의 부재기간*	남편의 부재이유	사례	이름	남편의 부재기간*	남편의 부재이유
1	김노분	25년	사망	10	양순옥	4년+22년**	사망+사망
2	김해순	3년	사망	11	윤순재	3년+ 3년**	이혼+사망
3	이순희	20년	별거	12	최봉순	5년+38년**	별거+사망
4	최무순	37년	사망	13	박순정	7년+33년**	가출+사망
5	박재순	3년	사망	14	강옥련	50년	이혼
6	구경순	48년	사망	15	이옥순	42년	사망
7	강순복	13년	사망	16	홍차옥	39년	별거
8	윤필자	3년	사망	17	김둘이	34년	사망
9	박순임	34년	가출	18	설연이	23년	사망

* 사망, 별거, 가출의 시점부터 1998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앞의 연수는 첫 남편의 사망, 별거, 가출, 이혼 시점에서부터 재혼까지의 기간, 뒤의 연수는 두 번째 남편의 사망 시점부터 1998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남편의 부재가 생애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한 경우는 사례2와 사례12, 사례16, 사례18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 해당된다. 남편의 사망이나 가출, 남편과의 별거는 곧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고, 특히 자녀가 어린 시기에 발생한 남편의 사망이나 가출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남편의 사망보다 더 큰 절망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사망이다. 특히, 밀착된 관계에 있던 자녀의 사망은 그들의 생애과정에서 큰 위기사건으로 남아있다. 김둘이씨는 남편의 사망 후 정서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외동딸을 시집 보낸 지 5년만에 잃고 는 화병을 얻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딸에 대한 생각만 하면 한숨과 눈물을 참지 못할 만큼 딸의 죽음은 김둘이씨의 생애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 지각하고 있다. 사례6의 구경순씨는 2살 된 아들의 사망을 크게 지각하고 있는데, 특히 남편의 사망에 뒤이은 외아들의 사망은 시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하락시키기도 했다. 결혼과 남편의 부재, 자녀의 사망, 이 외에도 그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을 정서적 위기로 지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독거노인들의 생애과정에서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삶의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 여성의 낮은 지위, 일제시대, 전쟁이라는 특수한 배경은 그들의 삶을 결코 순탄하게 만들지 않았다.

3. 가족관계와 가족사

여기에서는 독거노인의 원가족과 형제자매,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특성과 가족관계를 살펴 보았다. 가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의미있는 가족원은 누구였으며, 원가족과 결혼해서 형성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가족원은 누구이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가족관계선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현재의 가족관계와 정서적 상태

사례	이름	생존가족	가족 관계	정서적 상태	사례	이름	생존가족	가족 관계	정서적 상태
1	김노분	자녀1(남) 자녀2(여) 자녀3(여) 손녀	단절 단절 단절 친밀	보통	10	양순옥	자녀1(여) 자녀2(남) 자녀3(여) 자녀5(남) 자녀6(남) 여동생 이복동생	보통 소원 보통 친밀 보통 소원 단절	안정
2	김해순	자녀1(여) 자녀2(여) 농생들	보통 보통 소원	고립	11	윤순재	자녀3(여) 3의배우자	보통 친밀	안정
3	이순희	자녀1(여) 자녀2(여) 형제자매	보통 친밀 보통	안정	12	최봉순	자녀1(여) 자녀2(여) 자녀3(남)	이별 이별 소원	고립
4	김순남	자녀1(여) 자녀2(남) 자녀3(여)	소원 이별 소원	고립	13	박순정	자녀2(여) 자녀3(여) 여동생	소원 보통 이별	고립
5	박재순	자녀1(남) 자녀2(여) 자녀3(여) 자녀4(여) 형제자매	갈등 단절 단절 단절 단절	고립	14	강옥련	여동생	융합갈등	불안
6	구경순	자녀1(여) 자녀2(여) 농생들	보통 소원 보통	보통	15	이옥순	자녀1(여) 자녀6(여) 자녀7(여) 언니들	보통 친밀 친밀 소원	안정
7	강순복	자녀1(여) 1의배우자 자녀2(여) 2의배우자	융합갈등 보통 갈등 갈등 갈등	고립	16	홍차옥	자녀1(여) 자녀2(여) 오빠 친정조카	소원 소원 보통 친밀	보통
8	윤필자	자녀1(남) 자녀4(여) 친정조카	소원 보통 친밀	보통	17	김둘이	손자 둘	친밀	불안 (손자걱정)
9	박순임	자녀1(여) 자녀2(여) 자녀3(남) 자녀4(여) 자녀5(남) 자녀6(남)	보통 보통 친밀 보통 보통 친밀	불안 (화병)	18	설연이	동생들	이별	고립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8사례 중 7사례가 정서적으로 완전 고립상태에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현재 생존해 있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단절 또는 소원한 관계에 있다. 나머지 11사례는 자녀 또는 친정조카,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잦은 왕래가 없고 독립적으로 가구를 형성해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의 형성원인과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형성원인은 독거노인

자신이 지각하는 원인에 초점을 두었으며, 형성과정에서는 그들의 진술을 객관화하여 독거노인의 형성경로와 생애과정, 가족관계와 가족사를 분석하였다. 형성원인과 과정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면, 형성원인에서 유형2(사례3, 사례6, 사례15, 사례16) 중에서 사례15 외의 사례는 형성과정의 유형2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독거직전에 미혼자녀와 함께 살았던 사례3, 사례6, 사례9, 사례12, 사례16 중 아들과 동거했던 사례9, 사례12를 제외한 나머지, 즉 미혼의 딸과 동거하다가 딸이 결혼하면서 독거가구를 형성한 경우 이들은 자신의 독거원인을 아들의 부재로 두고 있으며 딸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양기대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성원인에서 유형3(사례8, 사례10, 사례11)은 모두 형성과정의 유형1에 포함된다. 즉,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독거 직전에 노부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는 총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물결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부양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정서적·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기술적이고 탐색적인 측면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면에 있어 생활실태와 복지요구, 복지적 대안에 치중되어 있고, 가족사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자녀와의 결속도 정도를 보고 있다. 이것은 독거노인이 형성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사적 배경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을 그들의 삶의 경험과 가족사의 측면에서 생애과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은 독거가구의 형성원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결과는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불효 또는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의 포기(유형1), '딸은 출가외인이니까'(유형2), '자식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으니까'(유형3), '자녀가 없으니까'(유형4), '남편을 잘못 만나서'(유형5)가 그것이다. 형성원인에 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부분은 자녀와 결부된 지각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단지 2사례(사례1, 사례5)만이 자녀에 대해 완전히 체념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례는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를 크고 작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형성과정은 '형성경로', '생애과정', '가족관계와 가족사'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형성경로는 독거직전의 동거가족원(유형1:남편, 유형2:미혼자녀, 유형3:기혼자녀, 유형4:손자녀, 유형5:친정어머니)이 누구냐에 따라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총 18사례 중 6사례는 전형적인 가족발달 단계인 유형1의 형태를 거치고 있지만, 나머지 12사례는 모두 남편의 이른 사망이나 남편과의 별거 또는 이혼, 자녀의 이른 사망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다.

'생애과정'은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전환점

은 결혼, 남편의 부재, 자녀의 사망, 친정어머니의 사망 등이었다. 즉 그들의 생애과정은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집에 시집을 가고, 아들을 출산하고 안하고 등의 주변인물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낮은 지위'가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삶의 형태가 그들을 독거노인으로 남게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족관계에서는 그들의 상당수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있다. 독거노인들은 자신의 원가족과 결혼 후 형성한 가족에서 유사한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갈등 또는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경우 남편 또는 아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아버지의 알콜 또는 외도, 경제적 무능함 등은 세대간에 전이되어 결혼 후의 가족에서 그대로 남편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다. 과거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듯이 이제는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은 노부모의 현명한 처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독거노인들은 자신이 원해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독거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독거노인가구의 형성은 예방될 수 있다. 독거노인의 생애과정과 가계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충분히 고립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셋째, 여성의 '낮은 지위'가 여성 독거노인가구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독거노인가구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남성중심의 호주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고, 생활보호법에서는 딸이라는 자녀가 있어도 이를 무의탁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제도상의 모순점을 보인다. 둘째, 남성중심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남자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가치관은 여성독거노인을 증가시킨다. 셋째, 3세대가 더불어 사는 개념의 가족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독거노인의 문제는 노인부양의 문제, 효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3세대 가족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특별관리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영역의 하나로 구축되어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부모와 남편의 형제관계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2-3회의 면접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해 가족사적 접근을 함에 있어 시집과 친정 양쪽의 가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노인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성독거노인의 삶과 가족사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울산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른 독거노인의 생애과정은 빈곤층과 중·상류층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중·상류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순(1993). 여성노인. 한국여성개발원. 5-8.
- 김태현(1993). 여성노인. 한국여성개발원. 9-24.
- 송대현·박한기(1992).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79-96.
- 송점호(1994).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추진·윤가현(1995). 재가서비스 수혜자인 독거노인의 경제 생활 실태 연구. 한국노년학 연구 4, 47-66.
- 심영 외(1996).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 경제 및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오복희(1996). "자녀별거노인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 외(1989).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이혜원(1997). 노인복지론. 서울 : 유평출판사.
- 조옥희 외(1991). 홀로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29(4), 115-130.
- 주성수·윤숙례(1993). 노부부와 홀로사는 노인들간의 일반건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3(1), 55-62.
- 최영아, 이정덕(1996). 홀로된 노인의 성의식과 재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6), 207-220.
- 최일선(1996).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섭·최성재(199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통계청(1997).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 한국가족학회(1996). 사회학에서의 가족연구. 가족연구의 학문별 접근 방법. 서울 : 하우.
- Elder, G. H.(1978). "Family History and The Life Course", in The Transitions : the Family and the Life Course in Historical Perspective, edited by T. K. Haraven, N. Y. : Academic Press.
- Morgan, D. H. J.(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Ward, R. A. The Aging Experience :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second edition. N. Y.